

보도시점 : 2023. 4. 2.(일) 11:00 이후(4.3.(월) 조간) / 배포 : 2023. 3. 31.(금)

국제선 운항 90% 회복 추진

- 올해 9월까지 코로나-19 이전 90% 수준까지 조기 회복 추진
- 일본·중국 등 중점 회복, 인천-프라하·취리히 등 중단노선도 운항재개
- 5대 지방국제공항(김해·대구·무안·청주·양양공항) 부정기편 착륙료 면제
- 봄철 수요 증가 대비 제주노선 공급 확대, 4월부터 인천-대구 내항기 운항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내수활성화 대책(3.29, 정부합동 발표)」에 따른 후속조치로,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-19 이전('19년 평균) 대비 90% 수준까지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취항 지원, 환승관광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

【 국제선 정기편 운항계획 】

- 국제선 정기편은 운항횟수가 증가하여, 204개 노선에서 주 4,075회 운항할 계획으로, 코로나-19 이전('19년 평균) 대비 90%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.
- 특히, 코로나-19 이전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한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 지원하여, 정기편은 올해 9월까지 코로나-19 이전 대비 일본 노선은 92%, 중국 노선은 87% 조기 회복될 전망이며,
- 코로나-19 이후로 운항이 중단되었던 인천-프라하, 인천-취리히, 인천-마드리드, 김해-가오슝의 운항이 재개되고, 인천-뉴약, 김포-베이징(다싱) 노선이 신규로 취항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.

< 국제선(정기편) 주요 운항재개·신규취항 현황 및 계획 >

노선	운항횟수(요일, 시작일)	노선	운항횟수(요일, 시작일)
인천-프라하	주3회(월수금 3.27~) 주4회(월수금토 6.2~)	대구-상하이	주5회(월화목금일, 6.1~)
인천-취리히	주3회(화목토, 3.28~)	청주-오사카	주7회(매일, 6.8~)
인천-마드리드	주3회(화목일, 4.23~)	무안-상하이	주2회(수토, 6.1~)
김해-베이징(서우두)	주14회(매일, 4.18~)	인천-뉴왁 ^{신규}	주4회(월수금일, 5.22~)
김해-가오슝	주7회(매일, 5.1~)	김포-베이징(다싱) ^{신규}	주7회(매일, 3.26~)

※ 실제 운항횟수·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, 항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필요

○ 아울러, 일본·중국 주요 노선인 인천공항 출발 나리타(주144회→168회), 오사카(주143회→168회), 상하이(주2회→88회), 칭다오(주12.5회→137회) 등이 증편되고, 김해-베이징, 대구-상하이, 청주-오사카, 무안-상하이 등 지방공항 출발 노선도 운항이 재개된다.

□ 이러한 운항 증가로, 코로나-19 이전 대비 동북아 노선은 89%, 동남아 노선은 91%(베트남 97%, 필리핀 94%, 태국 84%), 미주 노선은 92%(미국 92%, 캐나다 103%), 유럽 노선은 97%(독일 119%, 프랑스 95%, 영국 67%*) 회복이 예상된다.

* 코로나-19 이후 영국측 항공사는 운항 중단 상태

< 국제선(정기편) 주요 지역별·국가별 운항실적 및 계획 >

회복률*	동북아		동남아		미주			유럽			전체 (모든 노선)		
	일본	중국	베트남	필리핀	미국	캐나다	독일	프랑스					
'23.2월 (실적)	35.7%	59.8%	5.9%	78.8%	82.0%	74.9%	76.2%	76.3%	88.0%	71.0%	84.6%	94.7%	51.8%
'23.9월 (계획)	88.8%	92.0%	86.7%	90.5%	90.7%	94.3%	91.8%	92.0%	103.7%	96.5%	118.5%	95.2%	88.2%

* '23.2월은 '19.2월 대비, '23.9월은 '19년 평균('19.9월 일본노선 운항 대폭 감소 감안) 대비 수치

○ 나아가, 지역별 항공수요 회복에 따라 항공사가 임시 증편을 신청할 경우, 적극 허가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정기편 등 지원 확대 】

□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정기편 90% 수준 회복을 전망하는 가운데, 조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항 취항을 적극 지원하고, 인천공항 환승 여객 유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□ 지방공항은 기존 정기편 뿐만 아니라 부정기 항공편까지 취항에 따른 혜택 (인센티브)을 확대 지원하여, 방한수요의 신속 회복 등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.

○ 한국공항공사는 5개 지역 국제공항(김해·대구·무안·양양·청주) 취항 부정기편에 대해, 외국인 탑승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 각 공항별로 항공사당 최대 16편까지 한시적('23년 5월~11월)으로 착륙료를 면제하며,

○ 이와 함께 각 지자체(강원·대구·부산·전남·충북)에서도 신규노선 운항지원, 일정 탑승률 미만 시 손실지원 등 부정기 항공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< 공항별 지자체의 부정기편 지원 계획(안) >

공항명	부정기편 지원내용	지원조건 (운항장려·손실지원금)	지자체
김해	· 운항장려금 (편당 5백만원) · 홍보비용 (업체당 2~5백만원)	· 연간 4회 이상 운항 신규노선	부산
양양	· 운항장려금 (편당 1~3백만원) · 홍보비용 (업체당 최대 1천만원)	· 노선 운항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	강원
청주	· 운항장려금 (편당 2백만원) · 홍보비용 (업체당 0.5~3백만원)	· 연간 4회 이상 운항 신규노선	충북
대구	· 손실지원금 (편당 최대 6백만원)	· 정기편 전환 시 지급 ※ 탑승률·운항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	대구
무안	· 손실지원금 (편당 최대 2백만원) · 홍보비용 (업체당 최대 5백만원)	· 손실액의 50% 범위에서 지급 ※ 탑승률·운항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	전남

□ 또한, 「내수활성화 대책(3.29, 정부합동 발표)」에 따른 3종 환승 무비자 제도* 복원(5월)에 맞추어 인천공항 환승여객을 늘리는** 등 국제선 증편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.

- * ① 유럽·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시(최대 30일 체류, 지역제한 없음)
- ②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시(① 대상자 외, 최대 3일 + 수도권에만 체류 가능)
- ③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(인천 등 7개) 입국 → 제주공항으로 환승시 (최대 5일(양양 10일) +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 가능)

** ('19년) 840만명 → ('20년) 200만명 → ('21년) 53만명 → ('22년) 279만명 → ('23년 목표) 600만명 이상

○ 환승여객의 환승시간, 여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(1~3일), 지역별로 다양한 환승투어 프로그램*을 운영하고, 현지 로드쇼, 할인권 제공 등 프로모션으로 미국·중국·동남아 등 단기 체류 환승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* 1~5시간 수도권 중심의 무료 및 1~3일 수도권·지방 중심의 유료 프로그램 다수 (예시) 전통테마 2박3일(경상·충북·서울) : 불국사·첨성대(1일차)-하회마을·청남대(2일차)-남산·경복궁(3일차)

【 인기 국내 노선 증편 지원 】

-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에 따라 국내선 정기편 운항은 일부 감소하여 코로나-19 이전 운항횟수 수준(주 1,881회)으로 운항할 계획이며,
 - 4월 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제주-김포·김해·대구·청주와 김포-김해 등 수요가 많은 5개 노선*에는 주 113회 임시 증편하여 공급석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, 모든 지방공항에서도 제주행 정기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 슬롯도 지방 노선에 안배하였다.
 - * 김포-제주(주 15회 ↑), 김해-제주(주 27회 ↑), 대구-제주(주 5회 ↑), 청주-제주(주 20회 ↑), 김포-김해(주 46회 ↑)
 - 또한, 지난해 9월 국제선 환승객 전용으로 인천-김해 직항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고, 4월 23일부터는 인천-대구 노선이 추가되면서 지방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해외로 이동하는 이용객의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국제선 회복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지상조업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·관합동 항공회복지원단(단장: 항공정책관)을 구성하여 원활한 회복을 적극 관리할 계획” 이라면서,
 - “국제선 확대가 외국인 입국 확대 등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편, 지방 국제노선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에도 지속 노력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항공정책과 (내수 활성화)	책임자	과 장	김홍락 (044-201-4204)
			담당자	사무관	김정한 (044-201-4181)
				사무관	최대경 (044-201-4186)
				주무관	이세운 (044-201-4182)
				주무관	김학희 (044-201-4184)
		국제항공과 (국제선)	책임자	과 장	김남균 (044-201-4207)
		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 (044-201-4215)
				주무관	장휘량 (044-201-4220)
		항공산업과 (국내선)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19)
사무관	최진호 (044-201-4224)				
담당자	주무관		이금주 (044-201-4222)		

국제선 여객편이 대폭 확대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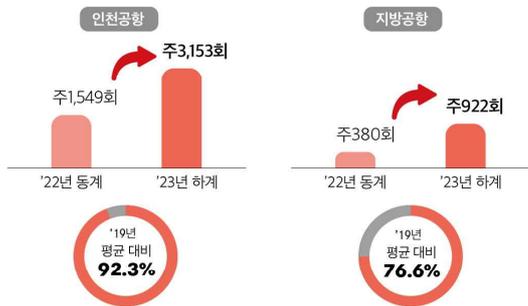
'23년 하계시즌('23.3.26~10.28),
코로나 이전 대비 **90%**
운항 회복 기대



'22년 동계 대비 크게 증가



지방공항 국제선 회복도 가시화



코로나로 중단된 노선의 **운항재개** 및
신규노선 개설로 국민 해외이동 편의 증진



* 주요노선으로 항공사 운항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일본, 중국 노선 대폭 확대



* 주요노선으로 항공사 운항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

* 주요노선으로 항공사 운항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*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·유럽의 일광절약시간제(daylight saving time)에 따른 운항시간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(동·하계) 일정을 조정함